

하나됨과 나눔

“ 사랑, 서로 따뜻하게 대접하십시오 ”

< 베드로전서 4장 8-9절 >

- 오늘은 78주년 광복절을 앞둔 기념주일입니다.
- 한국공동체교회협의회 '2023 한마당 대잔치'
주제 : 위기의 시대, 교회의 대안은 무엇인가?
기간 : 8월 17일(목) ~ 19일(토)
장소 : 경북 포항시 양포 YPC수련원
- 임채정 손희정 선교사님 가정이 17일(목) 출국합니다.
- 김성흠 청년이 20일(일) 이탈리아로 출국합니다.

* 고마움을 표해야 할 분들

나눔의 식탁 : 이충환 · 최연우 집사 가정 (감사)
김중필 · 이현숙 집사 가정 (감사)

강단을 꽃으로 :

주일 교회 승합차 운행시간 오전 9시50분 의정부역 6번 출구 영풍문고 앞

코이노니아를 지향하는 사랑방공동체

11187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림길134-178
<http://www.sarangbang.org> 전화:(031)544-1615 FAX:(031)544-1618

역할공동체 : 생활공동체 예배공동체 교육공동체 사역공동체 선교공동체
선 교 지 : 타지키스탄 대만 일본 요르단 중국

제 40 - 33 호

2023년 8월 13일

사랑방공동체

TK2000

“코이노니아를 지향하는 새 천년”

(고린도후서 13 : 13)

사
랑
방
은

주인이 거하는 방, 사람을 만나는 방, 뜻을 모으는 방입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고향이 되어 줘야 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부모님의 직업적 특성상 자주 이사를 다녀야 했습니다. 그래서 나의 고향은 어디일까? 라는 질문을 하며 혼란스러워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에서는 고향이라는 단어를 '태어나서 자라고 살아온 곳 또는 마음속 깊이 간직한 그림고 정든 장소'라 정의내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향이라는 말은 누구에게나 다정함과 그리움, 안타까움이라는 정감을 강하게 주는 말이면서도, 정작 '이것이 고향이다'라고 정의를 내리기는 어려운 단어입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는 나의 과거 경험이라는 시간과 관련이 있기도 하며 정이든 장소라는 일정한 형태를 띠기도 합니다. 혹은 감정을 표현하는 마음과 관련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향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것들이 떠오르십니까? 고향하면 떠오르는 것들이 있지만 물론 개인마다의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오이소박이, 지짐이, 묵은지와 같이 음식과 관련된 것이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 혹은 고구마, 옥수수, 그리고 다양한 열매를 서리하다가 혼나는 기억일수도 있고 고무줄, 술래잡기, 말뚝 박기 등의 놀이로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 구수한 사투리와 특별한 냄새가 나에게 고향이 떠오르게 하는 장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중 누군가는 고향을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사람도 있을 것이며 누군가는 고향이 어디인지 혼란스러운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고향에 대해 정확하게 정의내리기는 어렵지만 공유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의 고향은 어떤 곳인가요? 다시 돌아가고 싶은 곳, 편안함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곳입니다. 우리는 고향 [본향]을 향해 여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천국, 혹은 하나님나라는 고향이라는 이미지와 같은 느낌을 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도시화 되고 현대화 되어버려서 그 어디에서도 고향의 향수를 제대로 느낄 수 없지만 그것을 맛볼 수 있는 곳이 있는데 그곳이 바로 땅 위에 하늘나라인 이곳입니다. 우리는 사랑방에 모여 고향에서 느꼈던 그런 그리움과 향수를 느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실제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은 이와 같이 자신의 부족함과 채울 수 없던 목마름을 채웠고 편안히 안식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험하였던 것들을 기초로 서로에게 고향이 되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향은 도시화 된 사회에서 경험하는 불안과 착취, 억압과 고통에서 떠나 평화와 안식의 참된 쉼을 허락하는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서로에게 어떻게 고향이 되어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거울이 되어 서로에게 안식을 허락해 줄 수 있을까요? 지금 성서일기를 하고 있는 로마서 본문들이 좋은 바탕이 되어 줄 수 있습니다. 로마서 12장부터 16장까지 예배에 대하여, 거룩함에 대하여, 연합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들을 개개인의 삶에 적용하면서 서로에게 고향이 되어 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한계가 많은 인간들입니다. 그리고 그 한계는 끊임없이 서로를 지배하려 한다든지 헐뜯기도 하고 불안함을 심어주기도 합니다. 만약 교회가 그런 곳이 된다면 땅 위의 하늘나라라 불릴 수도 고향이 되어 줄 수도 없습니다. 우리 개인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수님을 대한다는 마음으로 서로 대하며 환대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대개 우리의 힘으로 이루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꿈이며 성령께서 하실 수 있으시고 예수님께서 보이셨습니다. 우리는 그분 안에 연합할 수 있습니다. 서로에게 고향이 되어주는 사랑방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주간의 말씀

“ 그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따로 외딴 곳으로 와서, 좀 쉬어라."
거기에는 오고가는 사람이 하도 많아서
음식을 먹을 겨를조차 없었기 때문이다. ”
< 마가복음 6장 31절 말씀 >

<수요기도회>

인도 : 정재훈 목사

찬송 : 406 414 / 70

기도 : 최연우 집사

성경 : 로마서 11장 1-16절

제목 :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구원경륜

1. 내용: 이스라엘의 허물과 실수가 이방의 부요함이 되었다.(What)
<문단구분>
1~10절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
11~16절 <이스라엘의 회복>
2. 의미: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Why)
 - 1) 하나님의 선택받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불순종하였다.
 - 2)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시다.
 - 3) 이스라엘의 회복은 모든 민족에게 더욱 큰 복이 될 것이다.
3. 적용: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자. (How)
 - 1) 하나님의 복음 앞에서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자.
 - 2)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자.
 - 3)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자.

또, 다시, 또 시작하기

요~즘에 저녁 식사를 하고 나서 하는 일이 있습니다. 먼저 컵에 물을 따라놓습니다. 그 다음에 흰 가루가 든 봉지를 하나 뜯어서 혀를 피해 목구멍에 털어 넣습니다. 이때 잘못하면 기침을 할 수 있으니 숨을 참는 것이 요령입니다. 그리고 준비해둔 물로 별걱별걱 내려버립니다. 그렇습니다. 비타민 먹기입니다. 요즘이라고 말하긴 했지만, 처음 시작한 것은 2년쯤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만 보면 오래된 것 같지만, 눈에 안 띄거나, 귀찮음 등 별 시답잖은 이유로 간헐적 섭취를 해왔습니다.

효과요? 이런 말을 하면 광고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효과는 꽤 체감되는 수준입니다. 꾸준히 먹을 때와 안 먹을 때의 아침 기상의 개운함은 생각보다 차이가 났습니다. 좋은 영향을 주는 것이라면 계속 먹는 것이 좋을 텐데, 이따끔씩 잊기도 합니다. 그저께처럼 말입니다. 컵을 채우는 사이에 핸드폰을 보다가 왜 물을 떠 놓았는지 잊어버린 것이었죠. 이유가 없어져 버린 물이 식도로 넘어갈 때까지도, 저는 무엇이 이상한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기억난 것은, 자려고 침대에 누고 난 이후였습니다. 몸의 긴장을 풀고 가장 편안한 자세를 취한 채로 기억나버린 '해야 할 일'은 정말 성가시기 짝이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먹어야 하나?'는 고민은 몇 초도 가지 않았습니다. '하루 안 먹는다고 탈나나?'라는 가벼운 해답으로 통쳤기 때문이죠. 그리고 오늘 아침은 어제보다 조금 더, 눈꺼풀이 무거웠습니다.

좋은 것을 꾸준히 하는 것. 그것이 가볍고 사소한 것이라도, 누적 되면 커다란 열매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만큼의 분명한 지혜를, 저는 문득 이 사소한 사건에서 시작해서 곳곳에서 놓치고 있었던 생각이 들었습니다. 손 틈으로 흘려보내고 싶지 않아졌습니다. 먹고 생각하고 싸고 대화하고 씻고 일하는, 하루하루 반복되는 생의 작은 과정들을, 귀찮고 불편한데다 이전에 놓쳐서 연속성이 깨졌더라도, 다시 한 번, 이 단순하지만 강력한 쳇바퀴를 돌려보려고 합니다. 우선은 그렇지, 오늘은 까먹지 말고 먹어야겠습니다.

주일공동예배

오전11시

인도자 : 정재훈 목사
설교자 : 정재훈 목사

하나님의 부르심과 응답

- 초청의 말씀
- * 예배의 찬송
- * 기원의 기도
- * 기원찬송

시편 147 : 1-5
43

인도자
다함께
인도자
다함께

영광 영광

죄의 고백과 용서

- * 참회의 기도
- * 용서의 말씀
- * 신앙고백
- 고백의 찬송
- 공동기도
- 복회기도

로마서 8 : 32-34

인도자
다함께
다함께
다함께
인도자

419

하나님의 뜻과 말씀선포

- 성경낭독
- 성가대 찬양
- 설교

마가복음 6 : 1-13, 30-31
204
따뜻한사랑방
“ 그리스도인의 휴식 ” 정재훈 목사

설교자
따뜻한사랑방
정재훈 목사

의탁과 섬김의 삶

- 의탁의 기도
- 응답의 찬송
- * 봉헌기도
- * 영광찬송
- * 위탁의 말씀
- * 강복기도

주님의 사랑이

설교자
다함께
인도자
다함께
설교자
설교자

487

* 표는 일어서서 예배를 드립니다.

† 헌금은 들어오실 때 헌금함에 자유롭게 하십시오.

예배를 돕는 이들 안내 : 김영화 임상희/ 봉헌위원 : 정영옥/ 꽃꽂이 : 김영화
반주 : 김영희 이근자 정다운 박민정 임은숙 안지운
서진술 석지인 옥태철

공동기도문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참 휴식을 허락하셔서
온전하게 새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힘쓰게 해주십시오. 아멘.

그리스도인의 휴식

제자들을 쉬게 하시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짝 지워서,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신 후에 최소한의 물품만을 가지고 여러 마을로 전도하러 보내셨습니다. 제자들은 놀라운 성과를 가지고 예수님께 물려왔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경험한 놀라운 일들을 하루 속히 예수님께 들려드리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제자들의 이야기를 다 들으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쉬게 하셨습니다.

침을 가르치시다. 예수님의 3년 공생애 중에 마지막 해에 제자들을 불러서 전도여행을 보내셨습니다.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제자들은 예수님 없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전도여행을 시키신 것은 예수님과 제자들 모두에게 몹시 중요한 시점이었습니다. 제자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 사역을 행함에 있어서 꼭 배워야 할 것은 바로 침입니다.

올바른 휴식을 합시다. 좋은 휴식과 쉬에는 원리가 있습니다. 휴식은 일과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자신이 하고 있는 모든 일을 멈추고 쉬어야 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데리고 외딴 곳으로 가서 쉬도록 하셨습니다. 일상과 떨어진 장소에서 쉬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리고 휴식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배려를 경험할 수 있는 휴식이 좋은 휴식입니다.

수요기도회 / 저녁 7시 30분 / 인도 : 최기찬 전도사 / 기도 : 하경임 집사

< 사랑방공동체학교 소식 : 꾸러기학교 >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멋쟁이를 다니던 시절 매일매일 자연예배당을 드나들었지만 꾸러기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잘 알지 못했던 것 같다. 가끔 간식 섬김이를 하다가 마주치거나 누구 동생이더라 하면서 인사를 하는 정도였을까.

그러다 졸업하고 7년이 지난 후 가족인 가람이가 꾸러기에 입학하게 되면서 보다 가까워질 수 있었고 4살에 깍두기로 들어갔던 가람이는 벌써 꾸러기 4년 차가 되었다.

이때부터 나는 주말마다 꾸러기 사진을 몰아서 보고 있는데 나보다 더 신난 가람이의 해설을 곁들이면 드라마가 따로 없다. 언니들의 아빠 캠프 영상을 한 구간도 스킵 하지 않고 보면서 장기자랑 연습을 하기도 하고 이날의 감정은 어땠고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등등 나는 이렇게 가람이의 삶을 듣고 있다.

그러다 어느 날은 화가 났던 일을 얘기하길래 질문을 했다.

“가람아, 너는 화가 나면 어떻게 해?”

“처음에는 눈물이 좀 나지만 누가 안아주면 풀리지. 그런데 누가 못 안아주면 그냥 좀 자면 돼”

고민도 없이 답한다. 살면서 끝없이 마주하게 될 이 감정을 다루는 방법을 꾸러기는 알고 있었다. 하지만 이게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 끝에 나온 답이었겠는가... 즐거운 일로만 가득했다면 몰랐을 것들이었다. 사람과 사람으로만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을 통해서 자신을 알게 하는 것.

그렇구나! 여기는 가르쳐서 배울 수 없는 것들을 배우는 곳이었구나. 또다시 무릎을 '탁' 치게 된다.

자주는 아니지만 한 번씩 가람이를 데리러 학교에 갈 때가 있는데 조금 일찍 도착하면 자연예배당에서 놀고 있는 꾸러기들을 만날 수 있다. 커다란 문을 힘겹게 열고 들어가면 옹기종기 오늘의 놀이를 하는 아이들과 눈이 마주친다.

문이 황 달히기도 전에 그 넓은 예배당을 한달음에 가로지르며 온몸으로 인사를 해주는 꾸러기. 확실히 환대의 달인들이다.

천사들의 나팔 부는 환대가 이런 것일까? 꾸러기들은 오랜만에 본 손님에게 자신들의 재밌는 이야기를 해주며 새로운 친구들을 소개해주기 바쁘다. 친구들 한명 한명과 맺는 관계의 선들이 어찌나 다양하고 촘촘하던지 한 자릿수 인생은 이렇게 빠르게 빛나고 있었다.

이가람 꾸러기 사촌 언니 윤민정

공동생활의 일상

아니! 이렇게 더울 수가!! 섭씨35'c를 넘나드는 요즘 날씨에 모든 생활이 큰 영향을 받는다. 아침저녁으로도 더위와 싸워야 하는 형편이 됐다. 주중에 일하고 나면 잠깐씩 나무 그늘에 앉아 식구들이 모여서 담소를 나누었는데, 이걸 함께 할 수 있는 더위가 아니다.

집 떠나면 고생인 걸 알지만 길고 길었던 무더위 속에 여름공동체를 끝내고 짧게나마 가족 여행을 다녀왔다. 명분은 큰아들이 오랫동안 멀리 타국으로 가야 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근 몇 년 동안 타지 생활로 함께하지 못한 것도 있었기에 아쉬운 마음에 큰맘 먹고 여행을 계획했다. 간만에 온 가족이 함께 할 수 있어서 또 점점 커가는 자식들의 마음을 조금 더 알아갈 수 있어서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다. 몸과 마음이 커가는 자식들을 보면 참으로 대견스럽고 감사한 마음뿐이다.

마지막 날 태풍이 올라온다는 소리에 부리나케 올라오면서 걱정이 태산이었다. 태풍 피해를 입으면 어떻게 하나? 특히 밭에 심은 농작물이 신경이 쓰였다. 이것저것 많은 작물을 심어 놓고 관리가 잘 안되면 맘이 편치 않을 것 같아 더 조바심이 났던 것 같다. 최근에는 더위로 인해 낮에는 일하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에 저녁 어스름할 적에 잠깐씩 작업을 하다 보니 능률이 오르지 않고 맘만 바쁘다. 그때그때 미리 준비해 놓지 않으면 낭패를 보기 일쑤다.

아무리 몸으로 하는 일이 단순하다 하지만 결코 아니다. 계절 따라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모든 것이 몇 배로 힘들어진다. 특히 농사가 그렇다. 지금은 나집사님의 빈자리가 너무나 크다. 새삼스럽지만 존경스럽다. 공동체 누구나 개인의 일상이 힘들지 않길 바랄 뿐이다. 귀가 후 공동체 안의 시설물들을 둘러보니 걱정 반 염려 반. 무엇보다 손을 대야 하나 온갖 잡풀들이 우후죽순처럼 자라고 있다. 갑작스런 태풍의 거센 바람으로 곳곳에 죽은 나뭇가지들이 이곳저곳에 널브러져 있다. 한숨만 휴~ 다행인 건 옥수수나 참외 토마토는 공동체 식구들이 추수를 미리 해서 크게 피해를 보진 않았다. 공동체 안에 제때에 필요로 하는 손길들이 많이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문득 해본다.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듯이 차근차근 기도하는 맘으로 해결해 나가리라.

그루터기사랑방 김중필 집사

<수요 정오기도회>

인도 : 최기찬 전도사

찬송 : 213, 516

성경 : 시편 58편

말씀 : 이 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중보기도 :

1. 세계 평화와 선교를 위한 기도 <니제르의 평화를 위해>

서아프리카 15개국의 연합체인 서아프리카경제공동체(ECOWAS)가 오는 10일 특별 정상회의를 열고 쿠데타를 일으킨 니제르 군부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나이지리아와 코트디부아르, 세네갈은 군사적 개입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반면 베냉과 알제리, 차드는 이에 반대하고 있다. 특히 회원국 중 쿠데타 세력이 장악 중인 말리와 기니, 부르키나파소는 군사적 개입 시 선전포고로 간주하며 니제르 군부를 지원하겠다고 반발 중이다.

2. 교회갱신과 공동체를 위한 기도 <한국의 공동체를 위해>

1) 무더운 여름 각 공동체가 날씨로 인해 어려워하지 않도록

2) 한공협 한마당 잔치가 은혜 가운데 잘 준비되고 마칠 수 있도록

3. 지역사회와 우리 공동체를 위한 기도 <지체들을 위한 기도>

태풍으로 인해 큰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생활공동체 소식 >

태풍이 온다는 소식에 공동 식구들은 대비를 단단히 했습니다. 각 처에 있는 창문을 닫고, 파라솔도 거둬 게르에 가져다 두고 배수로 점검도 했습니다. 배수로에 쌓여 있는 흙을 퍼내서 물이 잘 빠지게 해주기도 했습니다. 새벽부터 밭에서 고추와 토마토 등 태풍에 떨어질 작물들을 거두어들였습니다.

다행히 큰 피해 없이 태풍이 지나갔지만, 제법 큰 나뭇가지들이 떨어져 있는 것을 보니 바람이 강하긴 했나 봅니다. 나뭇가지를 쓸어내는 빗자루 소리와 선선해진 바람 속에 밭 가는 경운기 소리가 들립니다. 시원해진 공기를 만끽하기도 전에 공동체를 가꾸는 일은 시작됩니다.

< 장영미 전도사 >